

【정의 및 역사적 배경】 통풍은 purine의 신진대사장애로 생기는 대사성 질환으로 ①과…◆
 ◆…뇨산혈증 ②특징적으로 재발되는 발작성 급성 관절염이 있으면서 혈액내의 백혈구에 m…◆
 ◆…monosodium urate monohydrate crystal이 발견되고 ③관절주위에 통풍결절이 생겨 관…◆
 ◆…절을 파괴시키며 ④신장질환을 동반하여 고혈압을 가져오며 ⑤요로결석을 가져오는 질…◆
 ◆…환이라 통풍은 기원전 5세기경부터 기록된 질환으로 통풍결절인 Tophus에 대하여는…◆
 ◆…서기 131년 Galen이 처음으로 기술하였고 통풍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에 이르러서였다. Colchicine은 1763년에 벌써 유럽에 소개되었고 유전성 통풍은 특수…◆
 ◆…한 효소 결핍에 관계된다는 것을 1967년 Seegmiller가 발견하였다. 그리고 유전성 통풍…◆
 ◆…의 가족에게 생기는 빈도는 6~20%에서 볼 수 있다. 1950년에 노산해설촉진제인 Pr…◆
 ◆…benecid가 발견되었고 Xantine oxidase inhibitor인 Allopurinol은 1963년부터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骨·관절 疾患시리즈

발생빈도

이 질환은 40~60세 사이에 호발하며 평균 호발연령은 44세이다. 남녀의 비는 20:1로 남자가 많다. 발생빈도는 서구인의 경우 0.3%이고 미국인의 경우에는 0.27%이지만 동양인의 빈도는 확실치 않다. 원발성 통풍은 여자에서는 약 3~7%이며 30세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혈중 노산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절염 증상은 초기에 발현된다. 속발성 통풍은 고혈압, 신장질환 등을 병발하고 신장병증을 일으킨다.

분류

통풍은 대개 임상적 증상에 따

hiazides, 피라진아마이드 등여러 가지가 있다. 또 과뇨산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발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통풍을 앓았던 환자를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 후 약 3~5일 사이에 발작이 일어나므로 예방적으로 Colchicine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 체중이 증가하면 비만하게 되는데 과뇨산혈증, 비만, 고혈압과는 서로 많은 상관관계가 있어 체중을 줄이면 혈중 노산농도가 감소한다. 반면 음식에서 칼로리의 섭취가 적으면 노산의 과다생산으로 과뇨산혈증을 일으키고 노산의 신장청소율 (renal clearance)가 감소된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통풍성 관절염의 빈도는 2~12%이고 통풍이 있는 환자에서 고혈압이 있으면 노산의 신장청소율이 감소되고 세뇨간의 기능장애로 결국 신장혈관질환을 가

정체 등에도 생긴다. 대동맥, 심근, 심장의 판막, 혀, 성대등에도 침착하고 팔목터널이나 족근터널을 압박하여 신경증후군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장질환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데 합병증으로는 과뇨산혈증이 있으며 ①신장질환에 monosodium urate monohydrate crystals이 침착하고 노산성 신장병증을 일으키는데 이는 서서히 진행되고 수명의 감소는 가져오지 않는다. 이때 단백뇨가 나오는 물은 약 20~40%에 따른다. ②또 집합관에 노산결정체가 침착되어 간질조직이나 혈관에 변화를 일으켜서 악성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때에는 관절염증성이 심하다고 신장증상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심한 신장증상이 있으면 관절염증성이 약하여도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집합관에 노산결정체의 침착이 생기면 결국 폐쇄를 가져오고

관절간격의 합소, 노산결정체의 침착으로 국소를 도려낸 모양 같은 글결손부를 나타내고 석회의 침착을 보인다.

연부조직의 종창은 급성통풍 때 관절내에 삼출액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고 오래동안 앓았던 환자는 통풍결절이 연부조직에 침착하여 종창이 생기고 xerography를 하면 토파스 성물질이 잘 보인다.

석회화는 통풍결절이 불어있는 연부조직에 석회침착이 되고 또 슬관절에서는 반월상연골에 석회침착이 생긴다.

관절면에 연골라골연화증이 생기는데 활막세포가 prostaglandin E₂의 생산을 증가시켜 뼈에서 칼시움을 동원하게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관절간격의 혈소는 관절연골의 파괴와 통풍결절의 침착으로 관절간격이 좁아지고 활막의 섬유원세포에서 collagenase가 분비되어 뼈의 미란과 관절의 파괴를 일으킨다.

관절을 중심해서 뼈의 일부를 도려낸다 punched out 병변이 생기는데 이는 주로 지골두의 연골하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약 40%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호발되는 부위는 족



◆ 급성통풍관절염 때 안정이 절대조, 고혈압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통사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고 이때의 통증은 갑자기 발작성으로 생기는데 주로 야간에 심하다. 발열, 두통, 빙백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점차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례개의 관절로 퍼져간다. 이러한 증상의 유발은 아무런 원인 없이도 생기거나 유발요인으로 가벼운 외상을 받거나 고지방식을 섭취하거나 실질장기(간, 콩팥등)를 먹거나 음주, 추위, 특수한 약물복용(페니실린, 인수린, 비타민 B₁₂) 후에 생기는 수도 있다.

짧은 간격을 두고 발작이 나타나며 발작간부증상의 간격도 좁아지고 결국은 불완전한 상태로 해소되어 만성 관절염이 되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불구하고 초기에는 40~60세이고 처음에 침범되는 관절은 약 50%에서는 족무지의 중족지 관절이다. 그외에 족관절, 발뒤금치술관절, 완관절, 수지관절, 주관절의 순서이고 척루, 고관절, 견관절과 같은 큰 관절은 드물게 침범되고 말초관절일수록 증상은 더욱 특징적으로 심

무지의 지관절부로 이것은 sodium urate가 뼈에 침착하여 생기는 것으로 이 질병의 기간과 심도에 관계된다. 그외에 대퇴골두의 저혈성피사, 천

임상증상

① 급성통풍성 관절염 (acute gouty arthritis)

이때는 심한 관절통이 생기는데 초기에는 85~90%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은 나이가 수록 들어나 20세기초만 해도 40대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70대로 30년이나 연장되었지만 최장수연령은 로마제국시대와 크게 다를바 없는 1백15세에 머물고 있다.

사람은 왜 늙어 죽는 것일까 이는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사춘기 전에는 남녀공히 3.5mg/dl 이런 것이 남자에서는 사춘기 이후에, 여자에서는 폐경기 이후에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급성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검사에서 더백혈구증이 있고 ESR이 증가한다. 광학현미경상에서 관찰하면 통풍성 결절에서 염증 물질에서 노산결정체는 발견할 수 있고 또 활액내의 백혈구세포내에서 sodium urate monohydrate crystals을 발견할 수 있다.

작 老化의 정획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최근 세계의 老年學者들은 미국 뉴욕의 마운트사이니아의료원에 모여 老化의 생리에 대한 새로운 학설과 인간의 수명연장에 대한 새 이론들을 제시, 老화의 원인 규명에 한발다步했다고 뉴스워크 최신호가 전한다.

인간의 老化에 대한 설명에서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어떻게 해서 늙어 죽는가』에 그치지 않고『

리한 노화 유전자를 진화시켜 왔느냐』하는데 대한 규명은 없었다.

이번 뉴욕회의에서 노년학 연구학자들은 이같은 노화에 대한 유전학적 이론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는데 플로디아의 레너드 헤이플리 교수의 수명연장 예를.

美老年학자들, 老化

통풍 및 통

관절간격의 합소, 노산결정체의 침착으로 국소를 도려낸 모양 같은 글결손부를 나타내고 석회의 침착을 보인다.

연부조직의 종창은 급성통풍 때 관절내에 삼출액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고 오래동안 앓았던 환자는 통풍결절이 연부조직에 침착하여 종창이 생기고 xerography를 하면 토파스 성물질이 잘 보인다.

석회화는 통풍결절이 불어있는 연부조직에 석회침착이 되고 또 슬관절에서는 반월상연골에 석회침착이 생긴다.

관절면에 연골라골연화증이 생기는데 활막세포가 prostaglandin E₂의 생산을 증가시켜 뼈에서 칼시움을 동원하게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관절간격의 혈소는 관절연골의 파괴와 통풍결절의 침착으로 관절간격이 좁아지고 활막의 섬유원세포에서 collagenase가 분비되어 뼈의 미란과 관절의 파괴를 일으킨다.

관절을 중심해서 뼈의 일부를 도려낸다 punched out 병변이 생기는데 이는 주로 지골두의 연골하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약 40%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호발되는 부위는 족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고 이때의 통증은 갑자기 발작성으로 생기는데 주로 야간에 심하다. 발열, 두통, 빙백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점차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례개의 관절로 퍼져간다. 이러한 증상의 유발은 아무런 원인 없이도 생기거나 유발요인으로 가벼운 외상을 받거나 고지방식을 섭취하거나 실질장기(간, 콩팥등)를 먹거나 음주, 추위, 특수한 약물복용(페니실린, 인수린, 비타민 B₁₂) 후에 생기는 수도 있다.

짧은 간격을 두고 발작이 나타나며 발작간부증상의 간격도 좁아지고 결국은 불완전한 상태로 해소되어 만성 관절염이 되고 서서히 진행하면서 불구하고 초기에는 40~60세이고 처음에 침범되는 관절은 약 50%에서는 족무지의 중족지 관절이다. 그외에 족관절, 발뒤금치술관절, 완관절, 수지관절, 주관절의 순서이고 척루, 고관절, 견관절과 같은 큰 관절은 드물게 침범되고 말초관절일수록 증상은 더욱 특징적으로 심

체중증가·영양실조·고혈압시 특히 조심해야

급성통풍관절염安定이 절대重要

라서 4가지 시기로 분류한다.
 ① 무증상과 노산혈증 (Asymptomatic hyperuricemia)
 ② 급성통풍관절염 (Acute gouty arthritis)
 ③ 동통발작간통증 (Intercritical gout)
 ④ 만성결절성통증 (Chronic topaceous gout)

원인적 요소

통풍에서는 혈중의 노산치가 상승하고 노산결정체가 관절, 활액막, 인대, 관절연골, 연골하골에 침착하여 이를반응을 일으켜 관절에 2차적으로 퇴행성 병변을 가져온다. 유전성이 있는 원발성 통풍은 삼엽색 체성우성으로 유전된다고 하며 이러한 가족에서의 발생빈도는 6~22%이고 남자에서 월등히 많이 발생한다.

혈중의 노산이 증가하면 산도가 저하되어 국소에 노산결정체의 축적 및 침착을 더욱 증가시켜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백혈구의 활동이 증가, 항진된다. 급성통풍은 어떤 순간적인 자극에 의해서 시기되기도 한다. 즉 외상, 음주, 혹은 종의 약물투여 또는 어떤 질환이나 수술후의 자극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외상으로는 족무지의 만성스트레인, 많이 걷는 경우, 심한 압박 등 가벼운 외상으로부터 골프, 사냥을 한 후에도 생긴다. 음주후에 알콜은 혈중노산치를 높이는데 전통통증자의 약 반수가 1주일에 1 pint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 어떤 약물이던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소량의 아스피린 (salicylate), 이뇨제 (mercurial diuretics), 인슐린, 페니실린, 비타민 B₁₂, 과당, 니코틴산, T-

져오고 신조직의 저산소증과 국소에 유산의 과잉 축적을 가져온다. 기타 다른 질환과의 관계는 다발성골수종, 악성빈혈, 골수나 임파조직의 기능향상을 가져오는 질환, 백혈병 등이 관계된다. 그리고 연증독증이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만성신부전증 등에서도 통풍과 많은 관계가 있다.

병리소견

노산은 purine 기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약 1200mg의 노산이 있는데 이중 하루에 소체되는 양은 약 700mg으로 이중 2/3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고 나머지 1/3은 위장계통으로 들어가서 파괴된다. 노산염의 결정체는 연골, 골장부, 관절주위의 연부조직 및 신장에 침착하게 된다. 노산결정체가 침착된 주위는 피지를 이르기고 이를 작용에 의한 반응으로 섬유조직의 증식이 생기고 노산결정체가 기질과 염증반응을 일으켜 이를 성유아종을 형성한다. 침범된 관절은 연골의 퇴행성 변화, 활막의 증식, 연골하골의 파괴, 골연부골증식을 가져오고 간혹 피누스형성과 함께 섬유성 강직을 가져와서 불가능된다. 실험에 의하면 연골은 더백혈구증이 있고 E, S.R.이 증가한다. 광학현미경상에서 관찰하면 통풍성 결절에서 염증 물질에서 노산결정체는 발견할 수 있고 또 활액내의 백혈구세포내에서 sodium urate monohydrate crystals을 발견할 수 있다.

검사소견

과뇨산혈증은 노산측정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Enzymatic spectrophotometric method에 의하면 성인 남자는 6.9~7.5mg/dl, 성인여자는 5.7~6.6mg/dl이다. 또 Colorimetric method에 의하면 7.3~8.5mg/dl로 이것도 각각 종족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7.0mg/dl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대체로 사춘기 전에는 남녀공히 3.5mg/dl 이런 것이 남자에서는 사춘기 이후에, 여자에서는 폐경기 이후에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급성통풍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검사에서 더백혈구증이 있고 ESR이 증가한다. 광학현미경상에서 관찰하면 통풍성 결절에서 염증 물질에서 노산결정체는 발견할 수 있고 또 활액내의 백혈구세포내에서 sodium urate monohydrate crystals을 발견할 수 있다.

방사선소견

방사선소견이 진단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관절의 변화가 없으나 얼마의 시기가 지나면 연부조직의 종창

리한 노화 유전자를 진화시켜 왔느냐 하는데 대한 규명은 없었다.

최근 세계의 老年學者들은 미국 뉴욕의 마운트사이니아의료원에 모여 老化의 생리에 대한 새로운 학설과 인간의 수명연장에 대한 새 이론들을 제시, 老화의 원인 규명에 한발다步했다고 뉴스워크 최신호가 전한다.

인간의 老化에 대한 설명에서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어떻게 해서 늙어 죽는가』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老化에 대한 설명 중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생명체의 삶의 여러 단계가 다 그러하듯 老化도『유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인데 生物의 발달의 완숙을 위한 유전자가 있다 老化를 위한 유전자도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老化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왜 자연은 생식에 불